‘광야효과’와 결핍제로의 삶

(예레미야 2:1~37)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3.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5.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6.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 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7.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8.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광야효과’와 결핍제로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광야효과’와 결핍제로의 삶

1930년대에 활동하셨던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의 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눈 덮인 광야는 일제강점기하에 있는 조국의 참혹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니'라는 말은 모든 식물이 아직 겨울추위에 눌려있는데 매화꽃이 홀로 피어 향기를 발하는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광복에 대한 희망을 매화향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는 말은 노래의 씨가 언제 피어날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환희의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 씨를 뿌리지만 천고(千古)라 부를 만큼 엄청나게 오랜 세월 후에야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노래의 씨를 수확하며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희망하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중에 절망감이 전해집니다. 실제로는 이 시가 나오고 십여 년 정도가 흐른 후에 광복이 됩니다만, 당시에 이육사 시인은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릴 정도로 절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국이 광야로 표현된 이유는 인간의 어떤 능력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장소이고, 생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결핍된 곳입니다. 시인은 조국을 광야로 비유하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암울한 광야도 기가 막히는 역전의 장소가 됩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오직 결핍만이 존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이용하여 결핍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콜레라 예방주사는 콜레라균을 배양시켜서 면역주사를 만들어 우리 몸이 콜레라균을 이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이처럼 결핍의 땅인 광야를 잘 이용해서 광야효과를 낼 수 있다면 결핍이 전혀 없는 삶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광야효과는 선민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선민이 이 특권인 광야효과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 주된 내용은 남 유다의 선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배도행위를 고발하고 심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설교로써 광야 사십년 세월에 대한 회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계약은 하나님과 선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혼기간을 사십년으로 정하시고 여행지를 광야로 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십년간의 밀월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고 하였지만 사실 선민들이 너무나 많은 불순종을 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유는 광야라는 환경 자체의 역할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광야를 사십년간의 밀월여행의 장소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이육사 시인은 광야를 절망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광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한 달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사십년을 광야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재능과 능력도 당장의 생존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판단을 통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인격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런 주체적 능력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사십년이나 광야를 배회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해 억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마음으로 바라봄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위해 선민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사십년을 묶어두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효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충성 봉사 신의 같은 것들로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능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보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를 밀월여행의 장소로 정하셔서 선민들과 사십년을 함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선민 250만 명과 모든 가축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동안에 결핍만 있는 광야에서 결핍이 없는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광야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핍이 없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

다. 눈앞에 보이는 곳은 푸른 들판이고 곡식이 자라는 밭입니다. 그런데 내 밭의 소출이 다른 사람의 밭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든 결실을 내겠다고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추구하던 풍요와 다산은 오늘날에는 부자 되는 것이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것들을 바라보는 동안 삶은 점점 힘들어져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문제는 광야가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효과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사십년이나 광야에 살게 하시며 광야체질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체질이 돼버린 광야효과를 대대로 물려주며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서 광야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허락하신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연습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통해 광야효과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7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그들이 이루었던 문화나 종교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허락받은 복지 바깥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에서 풍요와 다산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만 이 우상들이 상징하는 바가 풍요와 다산이었습니다.
선민들이 점차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에 의존해서 인격자로 믿는 것보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들판을 바라보며 질주하는 이방인들의 삶이 더 멋지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이루기 위해 믿는 신들을 보니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귀에 들리지도 않으시는 중에 오직 말씀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화려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욕망을 들끓게 만드는 예식과 절차들로 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효과가 뒤집혀져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다산을 보기 위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뒤집고 다시 광야효과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는 마음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꼭 풍요와 다산이 아닐지

라도 마음을 빼앗는 대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리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사는 동안에는 부부관계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그리는 이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다른 대상들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는 세상을 보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현재 기독교인들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바알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성전의 번제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을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음으로써 광야효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의미의 완성이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함으로써 광야효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의 아담은 판단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이 결핍이 없는 낙원으로써의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는 세상에서는 이루고 싶은 것을 보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법칙과 습관을 일컫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풍요롭지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져가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깜깜하게 보고 하나님을 광야로 여기는 광야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은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볼 때 광야효과는 살아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못 박힌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사십년간 갇혀서 주체성을 포기한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체성을 포기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은 곧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광야효과를 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마음에는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주머니와 같고 웅덩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으로 내 마음에 차오릅니다. 그리고 밖으로 넘쳐나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

된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음에 돈을 담고 이루고 싶은 일들을 향해 달려가도 마음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광야효과를 버린 사람들의 삶이 모습이 이러합니다. 자꾸만 이 세상을 마음이라는 웅덩이에 담고 채워보려 하지만,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마음은 채워지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 대단하고 훌륭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 마음에서는 하늘의 기운과 은총이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이 한 가지를 바라셨습니다.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고 희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뭔가 이루어져서 좋아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죽일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양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 의미의 완성이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광야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십년 동안 250만 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배는 창에 찔리셨으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온 몸이 채찍을 맞아 다 찢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혔으니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발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만족을 상징하는 배가 창에 찔렸으니 세상을 향해 소원할 수가 없습니다. 살갗이 찢겼으니 세상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 광야의 의미가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나가기 전에 10분이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해보시고,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서 광야효과를 내보세요. 그리고 삶에 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운이 내려오면서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한 순간도 없다면 하나님을 광야처럼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깜깜하게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선민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사십년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얻는 광야효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효과를 유지할 때에 우리의 삶은 결핍이 없는 에덴의 삶으로 회복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고 천태만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 광야효과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광야효과를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하늘기운이 내려오는 샘이 되게 해주셔서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